광주시 공사·공단 사장

연봉은 전국 최하위 경영성과 최고수준

도시철도·환경공단 등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 경영평가는 잇단 최우수

광주시 공사·공단 사장의 연봉은 전국 최하위인 반면 경영성과는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경우 광주는 83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광역시 평균인 8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적은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A시의 1억1700만원에 비해서는 340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의 연봉 역시 전국 광역시 평균인 8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적은 7800만원에 그쳤다.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광주디자인센터장의 연봉은 9700만원인데 반해 전국 광역시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봉은 광주가 1억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1억1900만원의 연봉을 주는 B지역보다 2000여만원이 적었고 광역시 평균인 1억700만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완에너지 등 출자기관은 상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로서 광주시 출자금이 25%미만이어서 경영평가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공사·공단 사장의 최초 연봉을 책정할 때는 업무난이도와 경력,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연봉 인상률은 안행부의 경영 평가와 CEO 성과 평가를 반영해 매년 결정하며, 매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타시도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출연기관장의 연봉은 각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광주발전연구원장 연봉은 장관급인 대구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차관급 수준으로 동일하고, 기타 출연기관 임원 연봉은 광역시 평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공단 대표의 연봉이 타지역과 비교해 최저 수준임에도 지난해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도시공사가 도시개발분야 1위, 도시철도는 '2013년 지하철 부문 고객만족도' 1위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산자부 기관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U대회 공식안무 'U댄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U댄스 공모전'이 마감됐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개최한 U댄스 공모전에는 애초 목표치인 50개보다 배 이상 많은 114개 작품이 참여했다.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사진은 소녀시대의 노래 'GEE' 안무가인 정진석 교수가 직접 안무한 공식 안무의 한 장면. 〈U대회 조직위 제공〉

U대회 조직위 동구 대원빌딩으로 이전

내년 1월 조직확대 대비…2년간 운영비 8억 절감 효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가 빠르면 오는 12월 동구 호남동 대원빌딩으로 이전한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내년 1월 조직위 3단계 조직개편에 대비해 약 400여명의 직원을 수용할 청사건물을 공개 모집한 결과 호남동 대원빌딩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직위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건물 4곳을 대상으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주차시설, 대중교통여건, 주변환경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대원빌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 청사 임대를 추진했던 광주 남구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면서 4개 건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구 치평동 현대해상 건물 3개 층(658평)을 사용하는 조직위는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 1월께 대원빌딩으로 옮겨 총 13개 층 중 비어있는 9개층(1~8층, 10층 1400여 평)을 2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대원빌딩의 관리비와 임대료는 연 8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조직위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해상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 6억 원대로, 면적이 갑절 이상 늘어날 경우 연 12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원빌딩이 4억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조직위는 이와 관련, 2년간 총 8억원 대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직위 인원이 현재의 180명에서 내년에는 380~400명으로 증가하고 건물 사용면적도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원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현대해상보다 훨씬 저렴하다"면서 "지하철과 가깝고,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침체한 구도심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익근무요원 인권청춘콘서트

오늘 5·18기념문화센터

광주시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인권청춘콘서트가 열린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12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공익근무요원 300명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권청춘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강운태 시장이 우수 복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20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평화와 인권을 노래하는 가수 '인디어수니' 초청 콘서트, 허창영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조사구제팀장의 인권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현장에서 시민과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매일 마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 공동체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는 공익근무요원 1250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시티 뉴스

동구 애로사항 청취 '주민 만남의 날' 정례화

광주시 동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 만남을 정례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이날 동구청사 3층 회의실에서 동명동 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문제와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분진·조망권 문제 등을 놓고 동명동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노 청장은 주민과 대화에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는 매주 월요일 한 차례씩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노 구청장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남구 오늘 150여명 참석 '장애인 정책포럼'

광주시 남구는 12일 오후 2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2013년 남구 장애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박찬동 광주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장애인복지관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문성 있는 외부 추천이사 확대, 정책 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및 주민 참여확대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

북구자원봉사센터 전국 최우수 장관상

광주시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29곳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밥차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인권강화교육 ▲찾아가는 자원봉사 실버원예교육 강사단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관리와 네트워크 및 홍보,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LED조명 보급 확대 업무협약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광주시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11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렸다. 〈광주시 제공〉

광주 교통사고 좀 줄어들려나

'사고 잦은' 11개 지점 올 개선사업 완료

광주시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7억원을 투입, 올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완공했다. 이번 개선사업 대상은 하남로 등 2개 구간과 북구청 사거리 등 11개 지점이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육교 아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치동 한전 앞, 용봉동 대신파크 앞 육교를 철거했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우치로와 하남로 구간 차로를 조정했다. 또,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교차로 구조개선 ▲차로 조정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전방 신호기 설치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동일 지점에서 연간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0년에 공사를 완료한 지점의 공사 전(2009년)과 공사 후(2011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인명피해는 179명에서 93명으로 48.0% 감소했으며 사고 발생 건수는 112건에서 60건으로 4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홍행기기자 redplane@